



■광주 북구문화센터 둘러보니



지난해 12월 양산동 개관 지하1층 지상3층 규모 양산 도서관·갤러리 등 어린이 도서 1만여권 비치 독서강좌·북스타트 등 예정 개관기념 '북구청소장품' 전



“지역주민 문화예술활동 지원합니다”

뒤로는 야트막한 산이 있고, 언덕너머로 아담한 저수지가 보인다. 앞으로는 신호등의 깜빡임에 따라 차들의 행렬이 이어진다. 주변의 풍경 속에 사뭇히 들어앉은 듯한 모던한 건물은 겨울임에도 산뜻한 분위기를 발한다.

최근 광주시 북구 양산동에 문을 연 북구문화센터(문화센터·양산동 하서로 299). 양산도서관도 함께 자리하고 있어 얼핏 도서관이 '더부살이'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어깨를 마주한 모습은 서로를 보듬고 함께하는 의좋은 형제를 떠올리게 한다. 네모난 건물과 기다란 기둥은 현대와 중세의 절묘한 조화처럼 보인다.

문화센터는 인문, 문화, 예술, 교육이 이뤄지는 복합문화공간이다. 이곳의 표현대로 하면 '예술의 창조 교육, 향유의 선순환을 이루는 시민문화 커뮤니티 공간'이다. 지난해 12월 24일 개관한 이곳은 북구가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2014년 12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6년에 걸쳐 116억 원이 투입됐으며 부지 4798㎡, 연면적 2641㎡에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다.

복합문화시설답게 1층은 무대와 관람석, 연습실이 있으며 2층은 어린이 도서관, 오픈갤러리, 3층은 도서관이 자리한다.

전체적으로 센터는 세련되고 모던한 분위기가 감돈다. 실내에 흐르는 쾌적함과 편안함은 새 건물이 주는 이미지보다는 이용자를 배려한 디자인과 공간 구성 등에서 연유하는 것 같다.

사실 이곳은 양산동에서도 후미지고 외진 곳이어서 사람들의 발길이 거의 없는 곳이다. 멀지 않은 곳에 본촌산단이 있고, 주위의 아파트 단지 너머로는 야산과 논밭이 펼쳐져 있다. 원래 양산저수지는 일대 논밭에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곳이지만, 수년 전 호수공원으로 개조해 주민들의 쉼터 역할을 해오고 있다.

전형적인 반농반도시(半農半都市)의 지역이지만, 양산제 인근으로 센터가 들어서면서 일대는 상전벽해(桑田碧海)의 변화를 맞았다. 주민들의 반응도 좋다. 무엇보다 마땅한 문화시설이 없어 늘 소외된 느낌이었지만 앞으로 다양한 문화를 접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높다.

이곳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안내에 따라 공간을 '감상하듯' 둘러본다. 내부 동선을 따라 이어지는 공간은 이용자의 편리를 고려한 배치로 보인다.

먼저 3층 도서관에 들어선다. 이곳은 도서 1만 1000권 소장을 목표로 점차 채워가는 중이다. 일반자료실과 전자잡지 및 전자신문을 볼 수 있는 종합자료실, 독서와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문화사랑방, 동아리 및 공연이 가능한 문화누리방 등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종합자료실은 카페식 공간으로 구성돼 있어 개방감과 친근함을 준다. 최신의 기기 등을 갖춘 디지털 자료실은 이곳의 자랑이다.

향후 도서관은 독서문화 강좌를 비롯해 책놀이를 즐길 수 있는 북스타트, 4월 도서관 주간에 펼쳐지는 그림책 원화 전시, 작가와의 만남, 체험행사 등을 기획하고 있다. 아울러 1일 도서관 현장체험을 위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도서관 이용방법, 동화 구연, 우수 영상물 상영 등도 진행할 예정이다.

어린이 도서관은 2층에 있다. 어린이도서 1만권 등을 비치하고 있으며, 바로 옆으로는 영·유아를 위한 그림책 도서 등이 구비돼 있다. 이곳은 반백의자, 소파, 책 소독기 등을 비치해 안전성을 높였다. 엄마와 아이들이 함께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구조여서 젊은 세대들에게는 유용해 보인다.

어린이 도서관을 나오면 오픈갤러리가 나온다. 아담하지만 개방감이 느껴지는 이곳은 현재 개관을 기념해 북구청 소장품 전 '비긴 어게인'이 열리고 있다. 2월까지 개최 예정인 전시는 양병구의 '승리', 최순님의 '우리 함께 오기를 잘했어' 등 19개 작품이 전시돼 있다.

입구에서는 양산도서관 개관을 축하하는 초등학생들의 카드가 달린 나무를 만날 수 있다. 인근 일곡도서관을 이용하는 초등학생들이 보낸 카드는 동심이 가득하다. "개관을 축하합니다. 책을 읽으러 자주 갈게요."

377석 규모를 갖춘 공연장도 센터의 자랑거리다. 관람석(1~2층) 외에도 다양한 공연이 이루어지는 무대, 출연자 대기실, 연습실 등을 갖추고 있어 여러 행사가 가능하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해설이 있는 '발레 살롱 콘서트'

'브루흐&바흐 스위트 by 김용걸' 6일 광주문예회관 소극장



발레 작품을 해설과 함께 만날 수 있는 시간이 펼쳐진다. 광주시립발레단(예술감독 최태지)은 오는 6일 오후2시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에서 수시공연 발레 살롱 콘서트 #1 '브루흐&바흐 스위트 by 김용걸'을 선보인다.

발레 살롱 콘서트는 18세기 유럽에서 문화와 지식의 산실로서 예술가와 감상자의 중개소와 같은 역할을 했던 '살롱'을 컨셉으로 기획했다.

올해 첫 번째 발레 살롱 콘서트에서는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이자 안무가인 김용걸의 창작 작품을 만난다. 김 씨는 파리 국립오페라 발레단 최초의 동양인 남자 무용수로 입단했다. 1988년 파리 국제무용콩쿨 파르두부문 1위, 1999년 대한민국 문화훈장 화관장을 수상했으며 안무가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날 공연에서는 브루흐의 '바이올린 협주곡 1번'과 바흐의 '파르티타 1번', '바이올린 소나타 3번' 등으로 구성된 바흐 모음곡에 맞춘 안무를 선보인다. 김 씨는 '극 안의 수많은 악상이 마치 인

간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관절들의 움직임을 연상케' 한 데서 안무를 고안했다.

무대에는 공유민·우건화·강민지·김희준·전진마·보그단 등이 오른다. 살롱 콘서트의 묘미인 발레작품에 대한 해설과 관객과의 소통은 광주시립발레단 최태지 예술감독과 김용걸 안무가가 함께 맡는다. 특히 이번 공연은 광주MBC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된다.

한편, 올해 상반기 광주시립발레단 발레 살롱 콘서트는 매월 두 번째 주 금요일과 토요일에 열리며, 두 번째 공연은 국립발레단 수석무용수로 활동했던 발레리나 김지영이 연출자로 참여한다. R석 1만5000원, S석 1만원, A석 5000원.

/전문기자 ej6621@kwangju.co.kr



김용걸

제자리로 돌아온 필암서원 '하서유묵 목죽도판'

문화재청, 도난문화재 34점 회수... '선운사석씨원류'도 포함

지난 2019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장성 필암서원은 하서 김인후(1510-1560)의 학덕을 기리기 위해 건립됐다. 대원군의 서원 철폐령에도 훼손(毀撤)되지 않은 호남의 대표 서원이다. 이곳에는 문인 학연후와 글공부를 하던 청절당 등을 비롯해 소중한 문화재들이 많다.

당초 이곳에는 인종이 김인후에게 하사한 유묵 목판 등이 경장각에 보관돼 있었다. 그러나 지난 2006년 경장각 개방 당시 목판을 비롯한 문화재 도난 사실이 알려졌다.

필암서원의 '하서유묵 목죽도판'을 비롯해 도난 문화재 34점이 회수됐다.

문화재청 사범단속반은 도난문화재 관련 첩보를 2019년 7월 입수해, 문화재매매업자와 문화재 사범을 대상으로 탐문조사 끝에 '장성필암서원하서유묵목판일괄' (56판) 중 3점을 포함해 총 34점 문화재를 회수했다고 밝혔다. 2019년 11월부터 2020년 2월까지 3회에 걸쳐 회수가 이뤄졌다.

이번에 회수한 '장성필암서원하서유묵목판일괄' (전남유형문화재 제216호)은 인종이 하서 김인후에게 하사한 3점이다. 선조 1년(1568)과 영



'목죽도판 2'

조 46년(1770)에 새긴 것으로 군신관계인 인종과 하서의 이상적 관계를 알린다는 뜻이 담겨 있다. 또한 성리학자들 사이에서 전형적인 글씨로 알려진 하서의 초서체를 엿볼 수 있다. 아울러 목죽도판을 통해 판각의 변천양식과

조선사회 생활방식도 파악할 수 있다.

함께 회수한 문화재 가운데는 전북 유형문화재 제14호 '선운사석씨원류'도 있다. 석가의 일대기와 불법(佛法)을 글과 그림으로 제작한 목판으로 조선시대 삽화 중 걸작으로 평가받는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그린알로에

그린궁 GREEN GOONG PRIME EVER 120 프라임에버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